



## 대교협 동정

### 2012년 제3회 CEO특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30일(수) 제주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모바일 혁명과 카카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카카오는 1년에 10차례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학창 시절 역사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언론사 기자와 미국 변호사를 거쳐 정보기술(IT) 업계에 입문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후 글로벌 기업인 IBM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며 IT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매료됐고, NHN의 법무담당 이사와 미국법인장을 역임하면서 특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카카오 공동대표로 선임돼 카카오의 대외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 이 대표는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남에 의한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삶을 가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면 대다수가 '어떤 직장이 좋은가' '연봉은 얼마나 되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따위를 물어본다"며 "이런 질문은 모두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대표는 "비록 주어진 현실이 벽차더라도 대학생 시절에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질문은 '나'로 시작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청춘의 특권"이라며 세상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며 강연을 마쳤다.

## ‘대학의 균형발전 방안 탐색’ 정책포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 31일(목) 오후 1시 대전 한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대학의 균형발전 방안 탐색」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대학특성화, 대학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지역대학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고 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성장의 견인차가 될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특화산업과 지역대학이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정책에 대한 대학과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발전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학협력 활성화와 지역대학 균형 발전>의 주제 발표에서 최은옥 국장(교과부 산학협력관)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공생 발전하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유입-양성-정주’의 선순

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정부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LINC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이 선도하는 현장중심형 특성화를 촉진하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장학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덕희 교수(창원대 기획처장)는 “모든 정책은 대학의 기능인 교육·연구·봉사를 저해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에 대해 소위 SKY 대학과 거점국립대 및 지역중심국립대 등 각 대학의 역할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교수(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 전북대 기획처장)는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취업률의 비중이 과다하므로, 지역산업구조 여건으로 보정이 필요하고, 각 대학의 비전과 특성화 여건을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지역인재 유치 및 육성방안>의 주제 발표에서 류장수 교수(부경대 경제학부, 전 지방대·전문대발전위원회 위원장)는 “지역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지역이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1차(고교 졸업후 수도권 대학 진학), 2차(지역대학에서 수도권으로 편입), 3차(지역대학 졸업후 수도권 취업)에 걸쳐 유출되고 있는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확충, 미래인재장학생 제도 실시 등을 통한 최우수 인재의 지역대학 입학 유인, 권역별로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통한 지역대학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훈 교수(영남대 경영학부)는 “그동안 지역주도형 인력양성정책이 부족하였고, 공급자 위주의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경력설계의 미스매치가 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도·지역중심의 지역발전체제 구축, 국가와 지역의 이원화(two track)된 지역인력양성체제로의 전환, 지역의 고용과 교육의 연계화 체제의 확대(LE2P\* model)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박찬수 교수(건양대 교양학부)는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3차에 걸쳐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적 관점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함이고, 양질·대량의 직장을 지역에서 창출하는 것은 지역대학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가장 절실하고 긴요한 현실적 대안은 졸업생의 취업역량을 재학 중에 강화시켜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는 인식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LE2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Local Education Partnerships

□ <지역대학 특성화 및 육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는 이충곤 교수(한밭대 산학협력단 부단장)가 한밭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특성화를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한밭대의 산학협력은 충실한 산학협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인데, 긴밀한 체제의 산학협력 조직, 산학연 협동관과 융합캠퍼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미니클러스터 등의 운영이 주요하였다”고 밝히고, “산학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RIC 사업, 연계망 구축사업, 산업단지캠퍼스 지원사업 등이 산학협력형 대학 시스템을 갖춘 특화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설용태 교수(호서대 산학부총장)는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범용형의 학사 및 전문학사를 배출해 왔으나, 미래사회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 졸업생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정책은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각 대학이 특화된 브랜드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백종국 교수(경상대 교수, 국립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는 “한밭대의 사례는 중소형 지역사립대학의 산학협력 모델로 참조할 만하지만, 설립주체별, 기능별, 학문영역별 특성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든 지역대학들이 산학협력분야에 몰두할 경우 대학의 기업종속, 이공계의 중복투자 등이 발생할 것이며, 현재의 산학협력은 국가발전의 4대 과제 수행(질적 발전+양극화 해소+국제경쟁력 증대+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지역과 대학의 공생발

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각 대학의 특성화·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모두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교협이 이러한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 강화

-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에서 인성평가 강화
-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은 긍정적으로 평가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회장 안상헌) 및 입학사정관제 정부 재정지원 66개 대학과 함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성적, 잠재력,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 기존에도 인성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였으나,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성평가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이는 지난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30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에서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 발달 사항을 핵심 요소별로 기록하도록 한 것과 연계하여 학생의 인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핵심 인성 요소)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 이와 관련, 학생들이 학교 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징벌적 사항을 파악해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인성평가 강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자기소개서) 대교협·입학사정관협의회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며,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 대학에서는 이 문항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인성 관련 신설 문항)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 대학의 판단에 따라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

◦ (교사추천서) 정부재정지원 대학 중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11년 35개 대학 → '12년 50개 대학 내외)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불가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함	특별함
	3학년전체	계열전체	학급전체						
1) 책임감									
2) 성실성									
3) 준법성									
4) 자기 주도성									
5) 리더십									
6) 협동성									
7) 나눔과 배려									

※ 대학의 판단에 따라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 가능

◦ (면접)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 (고교 정보시스템 및 고교 프로파일) 고교의 인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학은 학생 평가 시 고교의 인성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 "현재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학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되면 낙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가톨릭대(총장 소병욱)는 학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교양교육원에 글쓰기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 오는 2학기에 문을 열 글쓰기센터는 리포트, 발표문, 졸업논문, 자기소개서 같은 학생들이 쓰는 실용적인 글에 대한 개인 상담과 첨삭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발표, 토론, 프레젠테이션, 취업면접, 자기소개 등 말하기 활동 전반에 대한 상담과 전문적 지도도 맡는다.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특별 상담, 대학원생에 대한 학술적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글쓰기센터는 ‘교양 명저 100선’을 정해 교양필수 과목인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독후감 쓰기를 실시하고, 교내·외 글쓰기와 말하기 관련 행사를 주관한다. 글쓰기와 말하기 특강 및 워크숍도 가질 예정이다.

□ 대구가톨릭대가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효율적 자기표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글쓰기와 말하기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면서 대학 교육의 근간을 구성하는 요소인 만큼 선진교양교육 정착을 위해서도 말하기와 글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 백용매 교양교육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에게 폭 넓은 사고와 안목을 갖추게 하는 융복합적, 통섭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글쓰기와 말하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의 계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ACE사업(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으로 교양교육을 대폭 개편하면서 다양한 글쓰기와 말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 학기 글쓰기 우수사례 공모전과 말하기 스킬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글쓰기 우수사례 공모전에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해 논술, 생활글(수필, 기행문, 북리뷰 등)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 말하기 스킬경연대회에는 160여 팀(약 1천600여명)이 참가해 팀별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대구가톨릭대는 교양필수 과목인 ‘글쓰기와 말하기’(2학점)를 통해 전공계열별 맞춤형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목은 학업(리포트, 논문), 취업(이력서, 자기소개서), 직장생활(제안서, 기획안), 창업(사업유치설명서,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목적의 실용적인 글을 쓰도록 한다. 상황에 따른 바디스피치, 비즈니스 언어예절, 모의면접 등의 말하기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또 ‘사고와 표현’ 과목에서는 문학작품, 사회현상, 과학적 발견, 예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글을 쓰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와 말하기 및 토론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 ‘말하기와 글쓰기’ 강좌를 맡고 있는 임선애 교수(교양교육원)는 “학생들이 교과목 시간에 글쓰기 연습을 반복하고 담당 교수들이 첨삭지도를 해줌으로써 글쓰기와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에 선정된 조선대학교(총장 이상열)가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제1차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 간담회'를 5월 31일 오후 4시 해오름관 2층 접매청실에서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10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11년도에 시행된 대학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해 시행할 대학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조선대학교는 올해 서울시립대, 충남대와 함께 선도대학에 새로 선정됐으며 선도모델 부분(고교-대학 연계)에서 인센티브 지원까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조선대학교는 2008년에 신규대학으로 선정되어 1억8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 선도대학에 선정되어 7억 7천6백만 원을 지원받는 등 총 22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올해 선도대학에 선정되고 선도모델 인센티브 '자유영역: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별도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 선도모델 인센티브에 선정된 'Good To CU(Chosun University)'는 '조선대학교와 만나서 반갑다'라는 의미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다. 고교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등교육과정으로의 학습 연계, 진로 탐색 기회, 비교과 활동의 연계, 입학 정보를 제공한다. 고교생들이 재학기간 동

안 자신의 꿈과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입학사정관제(전형)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조선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전형 시행 첫 해인 2010학년도에 70명을 모집했으며 2011학년도에 500명, 2012학년도에 530명을 모집했으며 올해 2013학년도에는 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2012학년도에 신입학 전형료를 대폭 인하해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해 온 군산대학교(총장 채정룡)가 2013학년도에도 농어촌전형 신입학 전형료를 50% 내외로 인하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기회균형선발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모집시 전형료를 50,000원에서 5,000원(접수수료만 징수)으로 인하한 바 있는 군산대학교는, 2013학년도에도 농어촌전형 전형료를 수시1차 입학사정관 전형과 정시 가군은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수시2차는 25,000원에서 1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할 방침이다.

□ 군산대학교의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일자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수시 1차가 8월 16~29일, 2차 8월 30~9월 11일, 3차 11월 12~16일이며, 정시 가·다군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이다.

□ 이연식 입학관리본부장은 "현재 군산대학교의 입학 전형료는 타대학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2014학년도에는 특성화고 전형의 전형료를 추가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군산대학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고루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 한-EU 대학간 학생 교류의 장 마련

### - 한-EU OCEANS NETWORK 워크숍 개최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6월 2일(土)과 3일(日) 양일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미네르바 복합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교육협력사업(ICI-ECP\*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을 위한 OCEANS\*\* NETWORK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CI-ECP : Industrialized Countries Instrument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me

※OCEANS :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Exchange And Networking among Students

#### <EU ICI-ECP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EU와 역외국가의 고등교육기관간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향상
- 대상국가 : 선진 산업국가(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 주요내용 : EU 내 대학과 한국 대학간 상호 학생 및 교직원 교류 (4~6개월 간)

○ 동 워크숍은 EU와 역외 국가의 고등교육분야 학생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ICI-ECP 사업 참여 국가들(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2011년 호주에서 제1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은 제2차 워크숍으로, 이를 통해 한국과 EU 유수(有數)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간 고등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OCEANS NETWORK 워크숍은 그간 한-EU간 교육협력 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발전방향을 사업 참여대학 학생 및 교직원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다.

○ 한국외대 박철 총장이 축사를, 충북대 이옥화 교수가 EU와의 교육협력과 국제화와 관련된 기초연설을 할 계획이며, 주한 EU 대표부에서 한국과 EU의 교육협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ICI-ECP사업을 통해 한국대학에서 수학 중인 유럽학생들과 유럽 수학 경험이 있는 한국학생간, 한국과 EU 학생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양측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측의 서로 다른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도 2학기에 유럽에 파견되어 체류할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EU측 담당자가 직접 현지 적응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지대학에서 원활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ICI ECP 사업은 1995년부터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사업으로, EU 회원국과 EU 역외 선진 산업국가와의 고등교육분야 협력 프로그램이다. 현재 ICI-ECP에 참여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이며 그 외 미국, 캐나다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한국은 2009년부터 ICI-ECP에 참여, 2011년까지 3년간 경북대-바르샤바대(폴란드), 한양대-소데르튼대(스웨덴), 서울대-투빙엔데(독일) 등 9개 대학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참여대학들은 3년간 총 571명(한국측 학생 282명, EU측 학생 289명)의 학생들을 EU대학과 상호 교류해 왔다. 또한 2012년부터는 양측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개설 또는 직업훈련 커리큘럼 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이번 OCEANS NETWORK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EU 양측 교직원,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양측의 학업 방식, 대학 생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mailto: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